

# 제품 디자인에서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dentity of gender in product design

강혜경

이병종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Kang, Hye-kyoung

Lee, Byeong-Jong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 Key words: gender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당연시의 사고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인간으로서 공통점보다는 오히려 성적 차이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결과-성 역할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남성은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허용되며,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활동 영역·행동·태도·직업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성적 이유'로 인해 제한 받거나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성차별 현상, 성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성 불평등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성차별 현상에 그치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인격과 인간적 특성을 제한함으로써 억압적으로 경험되며, 때문에 '성억압'이 된다. 성불평등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성적 차이가 사회구조적 원리와 성적 우위의 위계 논리에 의해서 차별로 행해지기 때문이며, 성을 매개로 사회 관계가 특정한 원리와 구조로 질서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원리와 구조 전체를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러한 가부장제 구조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은 어떻게 형성되어, 또 그러한 성 역할과 제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부장제

원래 가부장이란 용어는 '가족의 대표인 가부장, 즉 집안의 연장자인 남자 어른이 가족 성원,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위를 갖는 것 혹은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 가장의 통솔 아래 가족 성원 모두가 물질 생산과 생명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생산과 재생산 활동이 성별 분업과 남녀 간의 지배 관계, 남성들 간의 연장자와 연소자라는 위계 관계 속에 협동적인 분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의미는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변하게 된다. 초기 자본주의 발달은 가내 생산 양식의 해체를 초래하였으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주로 가족을 생산 단위로 이루어졌던 농업 생산이 공장을 중심으로 한 기계제 생산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생산지 대체는 직장과 가정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 결과 여성은 가정 내의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남성은 가정 밖에서 생산 노동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성별 분업은 점차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아버지의 지배'를 의미하였던 가부장제

는 '남성 우선' 또는 '남성 중심'에 입각해 있는 구조와 원리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게 되었다.

#### 2-1. 가부장제의 사회 재생산 구조

사회 재생산이란 어떤 사회나 사회체계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사회가 유지·존속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생산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먼저 물질적 생산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물질적 생산을 다시 되풀이하는, 물질적 재생산의 의미로 여기서 재생산은 소비와 일맥 상통한다. 다음은 노동력 재생산의 의미이다. 여기서 재생산과 재생산 활동은 사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쉬는 것을 말하며, 주로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가사 노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생산과 재생산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노동, 즉 인간의 재생산이 있다. 노동력 그 자체의 생산을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의 재생산은 바로 임신과 출산이다.

#### 2-2 사회재생산-출산과 육아

'페미니스트들은 왜 육아를 원하는가'라는 타이틀을 붙인 1970년 전미여성기구의 인쇄물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 온갖 나라의 여성이 몇 천년 동안 열등한 계급 지위에 머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여성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육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데 있다..... 여성이 거의 대부분 혼자서 아이 기르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 경제·정치·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것이다.....어머니에게는 육아라는 특수한 역할이 있으며, 아버지는 이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거부한다." 현재 대부분의 여성들은 육아를 혼자서 전담하던가, 아니면 다른 여성에게 지불하면서 대행시킬 수밖에 없다. 여성은 가부장제도의 구조적 모순의 근본을 형성하는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이라는 이항대립 속에서 모성과 일이라는 양자택일에 쫓겨야만 한다. 도로시 디너스테인은 《언어와 미노타우어》(1976)에서 성차별주의나 그밖의 노이로제 등의 근원은 어린이가 주요한 관계를 처음으로 갖는 상대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낸시 초도로우는 《어머니 노릇의 재생산》(1978)에서 남녀 간의 심리적·사회적인 불평등은 영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 시절에 주로 보살펴주는 쪽이 여성이며, 또 그것을 당연한 일로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남성은 자신의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남성이 여성과 대등한 역할

을 다할 때까지는 사회·문화적으로 조장된 성차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 3. 성역할 사회화.

그럼 과연 남자와 여자는 진짜로 다른가? 성(sexuality)의 개념을 규정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연주의적 접근으로서 성을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나 생리적인 충동의 표출로 보고 그 본질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성을 인간의 심리와 사회 문화적 구조와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사회화는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하여 자기만이 갖는 독특한 인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서 사회 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태도·가치 및 역할을 배우는 것이다. 성역할이란 어떠한 태도와 행위가 남자에게 또는 여자에게 적절한가를 말해 주는 문화적 기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성역할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성역할 사회화이다.

#### 3-1 성역할 사회화 이론

성역할 사회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는 동일성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 세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 동일성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특히 동성 부모의 특정 행위 양식이나 특징들을 자신의 성격 일부라 만든다는 개념이다. 사회학습이론이란 성역할 행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성이론과 상통하는데 그 과정은 다르게 보고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의해 모방하는 것인데 그 동기를 아동이 실행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와 관련시켜 논의한다. 인지발달이론은 어린이가 인지적 성숙을 이루는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역할이 발달한다는 입장이다. 인지 발달은 그 첫 단계인 지각동작기(0~2세)로 시작하여 조작 전기(2~6세), 구체적 조작기(6~11세),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11세~성인)로 완성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 3세 아이는 자기 성은 정확히 말하지만 인형의 성을 말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다, 4~6세까지의 아이들은 남자 옷을 입으면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7세 이상의 아동은 여자가 모습이나 행동이 변한다 해도 남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성역할 행동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남녀의 성역할을 인지한다고 한다.

#### 3-2 유아기의 성역할 사회화

우슬라 쇼이는 남·여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적·문화적 결과물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시작은 출생시부터라고 말한다. 생후 첫 2주와 3주 사이의 신생아는 아직 주위 환경을 인지할 수 없고 주로 반사와 본능으로 살아간다. 원초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외적 자극을 인지하게 되는 시초의 이 영역에서 양육자의 성차별적 기대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린아이를 조절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성차별적 능력과 특성이 구성되고 성차별적 경험이 축적된다.

### 4. 결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무언적으로 여성, 남성 에 대한 차이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관계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여성성·남성성을 교육받아왔다는 이론들이 현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제품들에서도 확연히 들어난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사 노동 제품과 육아 용품들은 당연히 여성에게 판매 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고, 남성이 육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디자인 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들은 마치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자명한 것이라고 속삭이기라도 하듯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의 영역은 재생산의 한 영역으로써, 여성을 가정에 묶어 두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기대감에 부응하여 성장해간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적, 남성적으로 나누어진 물건들을 보고, 사용하며 자라고, 이로서 성 정체성을 습득해간다. 그리고 성장하여 부모가 되고 또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고정관념을 자신의 아이에게 전달해 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육아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어떠한 성적인 주체를 가지고 디자인되어졌는지 그 물건들을 살펴 보는 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제품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들은 고정되어가기 때문이다.

<표1>성역할 발달에 대한 두가지 관점

